

광주문예회관 공연은 'GAC 안방예술극장'에서

중계차 섭의 유튜브서 생방송
시청자 "화질 좋고 귀호강"
4월1일 광주시향 '죽음과 소녀'
4월9일 '김영옥·이효주 콘서트'



26일 오후 2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중인 'GAC 안방예술극장' 공연 모습.

최근 코로나 19의 여파로 공연장은 문을 닫았고 관객들은 온라인으로 공연을 만나는 추세다. 이에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이하 문예회관)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GAC(광주문화예술회관) 안방예술극장'을 선보인다.

26일 GAC 안방예술극장 유튜브 첫 생중계 현장인 문예회관 소극장을 찾았다. 객석은 텅 비어있었지만 뒷면에는 음향기와 모니터가 여러대 설치돼있었고 관객석 사이 통로에는 카메라가 자리 잡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초 기획됐고 회의를 거쳐 생방송이 가능한 시립단체를 선정, 순서를 정한 뒤 연습에 돌입했다. 온라인 생중계를 위해 중계차를 섭외했고 방송 첫 부분에 나오는 편집영상과 편성표도 제작했다.

이날 오후 2시 생방송에 출연한 광주시립극단 현악단 단원들은 약 10일전부터 각자 집에서 개인 연습을 해왔다. 그리고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리허설을 한 뒤 생방송 10분 전 무대에 올라 마지막 점검을 마쳤다.

생방송 시간이 다가오자 문예회관 관계자들과 음향·조명기 팀원들은 모두 긴장한 채 숨을 죽였고 시계바늘이 2시를 가리키면서 TBN 교통방송 박광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방송이 시작됐다.

박 아나운서는 "아름다운 봄날 코로나 19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기 공연을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공연의 시작을 알렸고 국악현악단 단원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다.

국악현악단은 첫 곡으로 '액맥이 타령'을 선보였다. 김광숙, 이왕재, 오영미 단원이 연주를 하고, 이은비 광주시립창극단원이 노래했으며 객원 연주자로 문경미(신디사이저), 오혁(베이스기타)이 참여했다.

문예회관 측은 공연을 보고 있는 관객들에게 유

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현재 감상하고 계신 '액맥이 타령'은 정초에 풍물패가 가정을 방문해 제액 초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안 좋은 기운을 몰아내고 집터를 수호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곡 '대금을 위한 다향'은 김나영, 김성이 단원의 연주로 관객과 만났고 마지막 곡으로는 구도의 자세로 춤을 추는 승려의 모습을 표현한 창작곡, '침향무'를 들려줬다.

약 30분간의 공연이 끝나고 무대와 음향기기 등을 재정비 한 후 오후 3시에는 광주시립창극단이 무대에 올랐다. 장영한, 장호준 수석단원이 놀부와 마당쇠로 나서 해설과 함께 첫 무대를 꾸몄고 이어 판소리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 무대를 소리 이복순 수석단원, 고수 이명식 단원이 공연했다.

마지막 무대는 최지선 단원이 무대에 올라 전통 무용 '살풀이'를 선보이며 장식했다.

문예회관 측은 "살풀이 보시면서 코로나의 나쁜 기운을 훌훌 털어버리세요" 등의 멘트로 영상을 보는 시민들과 소통하며 생방송을 마무리했다.

유튜브로 공연을 보던 시청자들도 실시간으로 소감을 올렸다. '이전살풀이'는 "화질도 좋고 귀호강 합니다"라는 소감을 밝혔고, '백영경'은 "광주시립창극단 공연 정말 재밌어요. 코로나 물러가라", '김준영'은 '코로나 극복 화이팅'이라고 전했다.

양승수 문예회관 공연지원과장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활용해 관객과의 소통 영역을 넓히는 일을 언젠가 해야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 첫 시도를 하게 돼 격정도 되고 기대도 된다"며 "공연예술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관객분들이 안방예술극장을 통해 소통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GAC 안방예술극장의 다음 순서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의 무대(4월1일 오후 2시)로 실내악시리즈 베토벤 현악4중주 작품 '18-4', 슈베르트 현악4중주 '죽음과 소녀'를 공연한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광주시립합창단의 '힘내라 코리아-빛나는 내일'을 생중계한다.

문예회관이 올해 야심차게 준비했던 기획공연도 애호가들을 찾아간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옥 & 피아니스트 이효주의 듀오 콘서트'(4월 9일), '11시 음악산책-유영옥의 베토벤니집'(4월 28일) 등이다. 5월 일정은 코로나 19 확산 추세에 따라 재공지할 예정이다.

실시간 생중계 및 공연 영상을 감상하려면 유튜브에서 광주문화예술회관을 검색해 구독하기를 누르면 된다. 공연 영상을 보면서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하면 실시간 소통, 댓글 응원을 할 수 있다. 일정 및 자세한 공연 내용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사진·전문계 기자 ej6621@kwangju.co.kr



조성진



에프게니 키신

28일 '세계 피아노의 날' 거장들의 온라인 무대

키신·부흐빈더 등 9명 출연... 조성진은 바리톤 괴르네와 협연

클래식 레이블 도이체 그라모폰(DG)이 오는 28일 세계 피아노의 날을 맞아 세계 최정상급 피아니스트가 대거 참가하는 온라인 콘서트를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세계 곳곳에서 클래식 공연이 취소되는 가운데 열리는 피아노 거장들의 공연이어서 눈길을 끈다.

26일 유니버설뮤직에 따르면 산하 클래식 레이블 DG는 28일 밤 11시(한국시간)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 최정상급 피아니스트들이 꾸미는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을 진행한다.

이날 라이브 스트리밍 콘서트에서는 '베토벤 전문가' 루돌프 부흐빈더를 비롯해 비킹구르 올라프손, 에프게니 키신, 마리아 조앙 피레스, 안 리치에

츠키, 율 베빙 등 9명의 세계 최정상급 피아니스트가 연주자로 나선다. 이 가운데 무대에서 은퇴를 선언했으나 이번에 '반짝 복귀'한 피레스의 실시간 연주는 특히나 주목해서 볼만하다. 이들은 각각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연주 영상을 20-30분간 들려줄 계획이다.

유니버설뮤직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라이브 스트리밍 콘서트는 일회성이 아니라 시리즈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 피아노의 날 기념 공연 1시간 전인 28일 밤 10시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가 슈베르트의 예술가곡을 들려준다. '스테이지 앳 홈'(Stage at Home)이라는 타이틀로 독일의 오발미디어가 주최하는 공연이다.

/연합뉴스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나포 공연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광주문화재단 '야외공연창작지원사업' 공모

4월 8일~16일 이메일 접수, 6월~10월 공연

광주문화재단은 '2020 야외공연창작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응모 자격은 창작 작품을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3년 이상의 전문 문화예술 법인 또는 등록 예술단체가 대상이며, 광주시에 소재해야 한다. 총 4개 내외 단체를 선정해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 이상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창작·초연 작품을 야외공연장에서 상설로 공연할 수 있는 단체, 공익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단체, 실무역량 또는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우선 선정한다. 실내공연을 단순히 야외로 옮긴 형태는 제외된다.

기획유형은 브랜드공연(무용, 연극, 음악 등)과 거리공연(마임, 퍼포먼스, 마술, 저글링, 인형극, 마당극, 기타 등), 소규모 거리공연 등이다.

희망 개인이나 단체는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4월 8일부터 16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2차 전문가 심사 또한 비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지원 단체의 PPT 발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에 문의. /박성천 기자 skypark@

5·18 40주년... 옛 전남도청 올해도 개방합니다

ACC, 5월 16일~7월 15일...4월 1일까지 위탁업체 공모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의 옛 전남도청(민주평화교류원)은 그동안 시민개방을 통해 국내외 관람객 32만 명이 다녀갈 만큼 인기를 끌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올해도 개방이 추진된다.

ACC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는 5월 16일

부터 7월 15일까지 민주평화교류원 6개 동을 시민에게 전면 개방한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 편의를 위해 금·토·공휴일에는 밤 9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ACC는 옛 전남도청 개방을 위한 위탁업체 공모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민

주평화교류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광주정신과 도청 복원 추진 의미를 안내 하는데 초점을 뒀다. 주요 과업은 전시해설 운영요원 등 인력 모집 및 관리·교육, 전시·체험·공연 등 관람시설 내 동선 관리 및 관람객 안내 등이다. 또한 관람시설 내 시설물과 콘텐츠, 장비 등 수리·점검 및 도난·훼손 방지와 관람객 질서 유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등도 해당한다.

제안서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며,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뒤, 방문접수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포럼]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각종 연회 행사”는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프로야구단지정속소 **KBO LEAGUE** 승무원지정속소 **KOREAN AIR** 승무원지정속소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지정속소 **t'way**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